



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 개최

- 총리 취임 후 4차례 현장점검에 이은 첫 준비위원회 주재
- 개막 두 달여 앞두고 준비상황 종합 점검 및 완벽한 행사 준비 지시

- 「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준비위원회」 제8차 회의가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.5.(금) 10: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. 이번 회의는 APEC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, 행사 개최에 꼭 필요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,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·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그간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(▲ 1차 7.11일 ▲ 2차 7.15~16일 ▲ 3차 8.6일 ▲ 4차 8.29일) 제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,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하였다.
- 회의에서 김 총리는 “APEC 정상회의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,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”며, “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인해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, 전례 없는 초격차 K-APEC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- 이번 준비위원회는 특히 ▲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 ▲ 만찬·문화행사·부대행사 기본계획 ▲ 입출국 기본계획 ▲ 경호안전대책 준비현황 ▲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등을 검토하고, 실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○ 김 총리는 제반 인프라 조성이 9월 중순 마무리될 예정임을 언급하며,
 ▲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줄 것 ▲ 참가자 숙소·식사·
 동선 등 서비스 품질 강화에 노력할 것 ▲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릴
 수 있도록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제고할 것 등을 특별히 당부하였다.

○ 또한 김 총리는 “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
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,
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경제인 행사를 잘 이끌어
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최태원 회장은 “새 정부 들어 총리님의 연이은 현장 방문 등 노고에
 감사드리며, 남은 50여일 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관계기관과
 협력할 것”이라고 화답하였다.

□ 김 총리는 끝으로 “외교부와 대한상의, 경상북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
 기관과 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-APEC을
 만들어 달라”고 당부하면서,

○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수요자의
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였다.

□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
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
 널리 알릴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
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팀장	정재상 (02-2100-2109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주 (044-200-2135)
담당 부서 <공동>	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	책임자	부장	임경훈 (02-2225-5902)
		담당자	서기관	최두원 (02-2225-5912)
담당 부서	외교부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	책임자	과장	이동구 (02-2100-7652)
		담당자	서기관	김현경 (02-2100-7775)